

## 공개된 정보

2020년 5월 16일 저녁 8시, 유명 연극배우 윤미영의 저택. 어두컴컴한 조리실 안에서 두 사람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이미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붉어진 남자가 연신 술잔을 들이키며 중얼거렸다.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남자의 이름은 김진호. 윤미영의 남편이자 명목상의 저택 주인이다. 다시 술잔으로 뺨어가는 그의 손을 맞은편의 남자가 제지하며 입을 열었다.

“형님, 안주 나오면 드세요.”

김진호를 형님이라고 부른 남자의 이름은 박인권. 윤미영의 매니저이자 비서 같은 존재다. 인권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칸에서 오른 속을 들여다 보던 남자가 덜컥 오븐을 열었다.

“올커니, 다 됐다.”

저택의 전속 요리사인 최종인은 갈색이 돌도록 잘 익은 통닭을 오븐에서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미리 해동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시간이 걸렸네. 어서들 드세요. 전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종인은 말을 하며 인권을 흘끗 쳐다보았고, 인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는 이미 인사불성이었다. 종인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서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한 지 20분쯤 지나, 닭구이가 뼈만 남았을 즈음 종인이 밖에서 갑자기 인권을 불러냈다. 진호는 신경도 쓰지 않고 술에만 열중했다. 그러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간 지 잠시 후, 소란스러운 소리가 미영의 연습실에서 들려왔다. 깜짝 놀란 진호가 밖으로 뛰어 나가보니, 종인과 인권이 연습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경비실장인 주광일이 경비실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진호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광일이 연습실 열쇠를 가져왔고, 세 사람은 서둘러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켜진 연습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막다 남긴 듯한 저녁식사가 접시에 놓여있을 뿐.

##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에 따른 타임라인

오후 6시	박인권, 연습실로 저녁식사 가져감
오후 6시 30분	주광일 순찰시간
오후 7시 3분	박인권, 김진호를 불러냄
오후 7시 8분	박인권과 김진호, 조리실에서 술을 마심
오후 7시 12분	최종인, 냉동닭을 가지러 냉동창고로 감
오후 7시 31분	최종인, 조리실로 복귀
오후 8시	주광일, 연습실 앞에 도착. 안에서 대분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 대기
오후 8시 10분	최종인, 조리실에서 나갈
오후 8시 30분	박인권, 조리실에서 나갈
오후 8시 37분	연습실 안의 목소리가 끊김. 연습실 문 앞에 있었던 박인권, 주광일의 일관된 증언
오후 8시 38분	최종인, 연습실 앞에 도착
오후 8시 40분	주광일, 경비실로 이동. 김진호, 연습실 앞에 도착
오후 8시 43분	주광일이 가져온 마스터키로 연습실 개방. 윤미영 실종



## 주광일(51) 남

→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 비밀: 오늘 캐리어를 운반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실

\* 승리조건: 1. 범인을 찾아낸다. 2. 범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이지 않는다.

### 당신의 행적

한때는 당신도 연극배우였다. 윤미영이 아직 헛병아리이던 시절, 그녀가 처음 몸 담았던 극단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가족을 꾸리고 딸이 생기면서 점차 현실의 무게에 끌려 다니기 시작했다. 당신의 딸, 연희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평범한 당신과 달리 딸은 영특했다. 당신은 점차 자신의 꿈에서 벗어나 딸의 꿈에 끌려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아니스트로 성공한다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이었다. 스무 살이 되어가자 딸은 독일 유학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당신은 딸의 고민을 눈치 챘다. 하지만 당신의 벌이로는 유학 지원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게다가 맞벌이하던 부인이 투병생활을 하면서 더 힘든 상황이 되었다. 담당의사는 힘든 상황에서도 인상 한번 쓰지 않고 헌신적으로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결국 당신의 부인은 죽고 말았다. 사인은 아드레날린의 부작용이라고만 들었다.

부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당신은 염치 불구하고 미영을 찾아가 아쉬운 부탁을 했고, 미영은 당신을 경비실장이라는 명분으로 채용했다. 어찌 보면 당신은 미영의 성장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지만, 저택에 들어온 후 미영은 당신을 완전히 깔보기 시작했다. 가끔은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아야했다. 돈이 먼저였다. 게다가 당신이 심한 일을 당하면 때때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박인권. 처음 봤을 때부터 웬지 낯이 익어 보일 정도로 친숙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웃는 얼굴, 세속적인 일에 초탈한 듯한 행동거지. 나쁘게 말하면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점점 돈에 안달이 나기 시작했다. 도둑질까지는 아니지만, 불법적인 일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가장 처음 손을 댄 부정은 요리사인 최종인과 관련된 일이었다. 종인은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 일을 돕기 시작했다. 종인이 당신의 순찰시간에 맞춰 커다란 캐리어를 냉동창고 앞에 놔두면, 당신은 그 캐리어를 경비실 앞 주차장까지 끌고 가서 냉동탑차에 실어둔다. 미리 시간을 약속하거나 서로 예정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저 당신은 순찰 때마다 냉동창고 앞을 확인했고, 캐리어가 있으면 가져다 실어두었다. 캐리어가 있는 날도 없는 날도 있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매번 종인에게 얼마간의 돈을 받았다. 캐리어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궁금해 하지 않았다. 뭔지 알아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챙기는 일은 하나 더 있었다. 바로 미영의 남편인 진호에게 부탁받은 일이었다. 진호는 당신에게 미영의 뒷조사를 맡겼다. 이유는 말하지도 않았고, 당신도 묻지 않았다. 당신은 꼬박꼬박 미영의 뒤를 조사해 진호에게 보고했고, 그 대가로 또 얼마의 돈을 받았다. 당신이라고 이런 부정들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방법이 없었다. 장기 대출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당신을 환영해주는 곳은 3급 용권 대부업체인 '머니트랩'뿐이었다. 땀땀하진 않았지만 정해진대로 굴러가는 매일매일이 그나마 당신에게 위안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이상했다. 모든 것이 예정과 달랐다. 미영으로부터 걸려온 갑작스러운 전화가 그 시작이었다.

"1시간 뒤에 오게" 오늘 저녁 7시, 당신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이 말만 남기고 뚝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은 직후, 당신은 일단 캐리어를 확인하기 위해 냉동창고로 갔다. 캐리어가 있었다. 어쩐지 다른 날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지만,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다. 캐리어를 끌고 가려던 차에 발바닥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져 내려다 보니 열쇠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누구의 열쇠인지 알 수 없었기에 일단 보관해놓고 나중에 주인을 찾기로 했다. 냉동탑차에 캐리어를 실을 땀, 확실히 무게가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잠깐의 작업이었지만 당신은 비오듯 땀을 흘려야만 했다. 작업을 끝내고 찌그러진 냉동차 문을 닫은 뒤, 당신은 경비실로 들어가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냉동차의 문이 찌그러진 건 한달 전의 낙석 때문이었다. 주차장에 인접한 절벽에서 꽤 큰 바위가 굴러 떨어졌는데, 당시 이 일로 집사가 도망치듯 일을 그만 두었다. 집사가 그만둔 이후 냉동창고와 연습실을 제외한 어지간한 열쇠는 당신이 관리하고 있다.

8시에 미영의 연습실에 찾아갔을 때, 연습실 안에서는 미영의 대본 연습이 한창이었다. 경험상 아무리 약속이 잡혀 있었다 해도 이럴 때 방해하면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알기에, 당신은 조용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기분이 이상해 뒤를 돌아보니, 박인권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인권의 뒤쪽 멀리서 종인이 숨어서 당신을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부자연스러운 일은 계속 일어났다. 인권이 당신의 코 앞에 다가왔을 즈음, 연습실 안의 목소리가 끊긴 것이다. 당신은 연습실 문을 두드리며 미영을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아니, 옹당 문 저편에서 들려야 할 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당신은 경비실에 달려가 마스터 키를 가지고 돌아왔다. 돌아왔을 때는 김진호도 문 앞에 와 있었다. 세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가 신경쓰였지만, 당신은 위화감을 떨쳐내고 연습실 문을 열었다. 연습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당신은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 세 사람 모두, 너무나 태연했다.

\* 추가규칙: 당신은 최종인/김진호와 한 거래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설사 타인에 의해 밝혀지거나 최종인/김진호에 의해 폭로된 후라도 끝까지 부정해야 한다.